

‘군민 체감’ 해남군 적극행정 성과 빛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해남군의 지속적인 행정혁신과 적극행정 추진 역량이 전국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도 등 5대 항목 18개 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심사하는 정부 대표 평

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등 4개 평가군으로 구분해 실시됐으며, 해남군은 모든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두며 기초자치단체 군 단위 전국 2위의 성과를 거뒀다.

해남군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별과 인센티브 제공,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에서 벗

2년 연속 ‘국무총리 표창’…전국 최고 행정역량 입증 명현관 군수 “신뢰받은 행정 구현·선도 지자체 도약”

어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군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실현한 점도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

특히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을 군정 전반에 정착시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온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다”며 “민선 9기에도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청

신안군, 국비 확보로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지속

11월까지 하반기 ‘찾아가는 청춘 스포츠교실’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상반기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인 ‘청춘 건강교실’ 운영을 마무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8월부터는 ‘찾아가는 청춘 스포츠교실’을 운영한다.

신안군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청춘 건강교실’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군비 2억3520만원을 확보해 2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26년에는 군비 예산이 1억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청춘 건강교실’을 운영했다.

상반기 ‘청춘 건강교실’은 14개 읍·면 경로당 71개소에서 어르신 800여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운영됐으며, 생활체조와 요가, 근력 강화 운동, 라텍스 밴드 운동 등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청춘 스포츠교실’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4개 읍·면 경로당



80개소에서 어르신 1000여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운영되며, 생활체조와 요가, 근력 강화 운동, 라텍스 밴드 운동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3개년 사업으로, 국비 3억원과 군비 3억원 등 총사업비 6억원 규모로 추진된

다. 올해는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하며, 2027년과 2028년에는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안군보건소 관계자는 “국비 확보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중심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여름휴가는 청정 바다 완도서 힐링”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 후 7만6000여명 다녀가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지난달 11일 개장한 가운데 7만6000명이 넘는 피서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7만6023명을 기록했다.

군이 오는 17일까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따라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지 명사십리는 약 3.8km에 달하는 너른 백사장과 청정한 바다, 해송 숲이 어우러져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서남해안 대표 해수욕장이다. 올해는 지난 2일까지 래프팅, 카약, 서프보드, 요트 등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들

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무료로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17만5000여명이 찾았다.

군은 피서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 관리·수상 안전 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며,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 기간임에 따라 가족 단위 피서객들을 위해 운영 질한, 물놀이 사고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여름 휴가는 청정 해변인 신지 명사십리에서 즐기고 가볼 만한 곳과 전복 등 먹거리가 풍부한 완도에서 힐링 여행하며 행복한 추억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

무안, ‘농산물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 마무리

가공 실습부터 상품화까지…농업인 창업 역량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가공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한 ‘농산물가공 소규모 창업 아카데미 심화반’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농산물가공 소규모 창업 아카데미 기초반을 수료한 관내 농업인 16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의 HACCP 적용, 식품 제조 현장 산업안전관리 등 심화 이론교육과 함께 집출차, 추출·농축, 제

과(비스코티), 시즈닝, 농축잼, 누룽지, 건조·코팅 가공 등 실제 가공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제품 개발부터 상품화가 될 창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익히고 다양한 가공기술을 직접 실습하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심화반 교육이

농업인들의 가공기술 향상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과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가공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초대석



서영교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약자의 눈물·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쳐겠다”

초대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첫 통합의회 성공의 길 반드시 열겠다”

지금 이 사람



고양메리호 최예진 활동가

“웃고자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됐다”

남도 예술인



정일행 극단 정이 대표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죠”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송도
바람에 기대어 역사를 만들다

이달의 이슈



커버스토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성공…
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
연관·협력기업 유치
교통 대전환·'올타'·AI 플랫폼 등
자율주행 메카 조성